

8. 종돈(F1) 자체 생산 활용 방법은?

▣ 종돈(F1)이란?

F1은 흔히 다른 품종의 순종돈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자손(F1)을 말합니다. 이는 순종돈 간의 교배를 통한 잡종강세 효과를 고려한 교배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번식능력이 좋은 모계계통으로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를 교배한 YL 또는 LY 계통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 종돈(F1) 자체 생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F1 구입에 따른 질병 유입 가능성 차단
 - 비교적 손쉽게 F1 모돈 생산 가능
- 단점
 - 순종돈 유지에 따른 평균 유지비 증가
 - 지속적인 순종돈 갱신에 따른 구입비용 증가
 - 인력 및 건물 등 추가 투자비용 필요

▣ 종돈(F1) 활용법

우수한 순종돈을 이용하여 생산된 F1은 기존에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후보돈군의 갱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돈의 갱신을 고려할 때는 모돈군의 갱신 비율을 고려하여 F1 생산 일정을 잡습니다. 번식능력이 가장 좋은 2~4산차까지의 모돈 비율은 5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번식능력이 좋은 F1에 육질 개량을 위해서 두록종이나 흑돼지계통의 종료종모돈을 활용하여 비육돈을 생산하면 됩니다.

【 양돈과 】